

3주 남은 여수 세계한상대회 준비 '착착'

홍보관 운영 공동마케팅 업체 공모하고 청년인턴·자원봉사자 모집 22~24일 60여개국 6000명 참가... 추진상황 점검 등 성공개최 만전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대회인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시를 비롯해 주관기관의 대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여수시 등이 주관하며 세계 60여개국 경제인 6000여명이 참여한다.

여수시는 올해 2월 18개 행정부서와 4개 유관기관, 인원 50여명으로 대회지원단을 꾸리고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4차 한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한상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5월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주재로 대회 지원단 중간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근에는 세계한상대회에서 관광 특별 홍보관을 운영할 공동마케팅 업체를 공개 모집했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행정인턴 등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상기업 청년인턴 모집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원봉사자 200여명도 모집했고 오는 18일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는 사전행사와 본 행사로 진행된다.

사전행사는 21일 한상 CEO강연부터 시작한다. 여수시 소재 대학과 고등학교 각각 1개소에서 한상 CEO가 착박한 해외시장에서 성공신화를 일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학생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상과 지역경제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한상 CEO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리딩 CEO, 운영위원, 지역 경제인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여객터미널에서 돌산대교까지 크루즈로 이동하며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는 22일 오전 제35차 한상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어 제36차 리딩 CEO 내부회의와 포럼이 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23일에는 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오전 10시부터 한상 비전 콘서트가 개최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해'라는 주제로 유명인사 강연과 비전토크로 구성될 계획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인과학기술', '한반도 신경제-개성공단', '재외동포 세무', '신남방 무역'을 주제로 세미나가 운영된다.

D2 전시홀에서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과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컨퍼런스홀에서는 영비즈니스리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마지막 행사 준비와 손님맞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7일 주관기관 합동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수 문화제야행' 현장.

여수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4건 선정

여수시가 문화재청 주관 '2020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 4개로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활용'이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문화시설을 개방해 체험, 공연 등을 진행하는 야간 프로그램이다.

여수시는 올해 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을 주제로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공연·투어 등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생생문화재는 지역 청소년과 시민에게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답사·체험 사업으로 주제는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은 옛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수시는 'Restart! 여수향교'를 추진해 여수향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전통산사 활용은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자원 등으로 꾸며진 사업으로 의승수군의 중심지였던 흥국사에서 '호국사찰 흥국사, 여수 흥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공모했고, 530건을 접수해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 체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상습 침수 국동지구 하수도 시설 대대적 확충

2023년까지 국비 221억 등 315억 투입 빗물 펌프장·유수지 설치

여수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여수시 국동지구에 315억원의 투입액 빗물 펌프장·유수지 설치·관로 정비 등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돼 국비 22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국동 수변공원에 빗물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고, 국동·대교동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동지구는 지대가 낮아 만조 시 배수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상습침수가 발생하던 지역이다.

여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여수시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지구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매년 하수 범람으



여수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여수시 국동지구에 315억원의 투입액 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침수피해가 잦은 국동지구 일대. (여수시 제공)

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자체가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내집·내사업장 앞 청결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결 유지 노력'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쓰레기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결 유지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

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주변 도로로 규정했다.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투기 등은

폐기물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조례 명의 '내 집 앞'을 '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현수 여수시의회 의원은 "조례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450원으로 결정

여수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45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생활임금 9190원보다 260원(2.8%)이 늘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860원(10%) 많은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

관·단체에 적용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등 18명 신규 채용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총 18명을 신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일반직 2명(행정 1, 보건 1), 기능직 1명(전기), 공무원 1명(사무보조), 환경미화직(일반경쟁채용) 10명, 환경미화직(보훈대상자특별채용) 4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일반경쟁채용으로 실시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보훈대상자특별채용은 보훈증을 통해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이다.

환경미화원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로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주민등록 등재기간의 합이 3년이상인 자이면 응시가능하다.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